

베링프로젝트만이 전쟁 없는 세계 만든다

박성열 UPF 부산광역시 회장(세계평화도로재단 자문위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17년 전 미국에서 천주평화연합(UPF) 창설 시에 선포하신 ‘베링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다. 그때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베링프로젝트를 추진했다라면 오늘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예방되었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를 분석할 때 단순한 우크라이나 한 나라를 침공한 것이 아니고, 서방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무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삼아 서방체제에 대한 공격 그리고 러시아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미·러 대륙 연결 됐으면 우크라 전쟁 없어

일찍이 총재 양위분께서는 구소련의 부활(러시아)이 언제라도 나타

날 것을 염려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2005년 9월12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UPF 창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베링프로젝트’를 선포하였다.

“세계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세계 창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본향의 설정을 위해 실로 섭리적이고,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하게 될 세계초고속도로를 연결해줄 ‘세계 평화의 왕 다리’와 터널(WORLD PEACE KING & QUEEN BRIDGE and TUNNEL)’을 건설하고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놓은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세계를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고, 유럽 대륙과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이 필요 없는 평화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대 최고의 지정학 전문가인 파라그 카나(Parag Khanna)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 혁명>에서 ‘연결은 안정적이고 평화에 기여한다’고 언급해 베링프로젝트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위험요소는 연결성이 해소하게 될 것이다. 연결은 운명이고, 연결된 국가는 싸우지 않는

다. 인프라는 영토보다 가치 있다. 국경은 마찰의 상징이기에 기반시설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베링프로젝트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발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와 미국 간 평화의 달성뿐만 아니라 세기의 뉴딜정책이 될 것이다. 즉, 침체된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세계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발

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남북 경협외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고 있는 한반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4대 강국이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정·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예부터 어느 한 국가가 패권적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베링프로젝트는 한반도가 강대국의 이해 실현을 위한 요

충지가

아닌 세계평화를 위한 요충지라는 섭리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동적 요충지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한반도가 환태평양과 동북아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탈냉전 후 국제정치의 심층동인은 경제적 이익 도모로 전환되면서 점차 지역 간 협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세계를 하나의 공간이자 공동운명체로 바꾸어 놓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베링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한반도는 한일해저터널을 통해 일본에서부터 중국, 러시아, 몽골과 연결되고, 시베리아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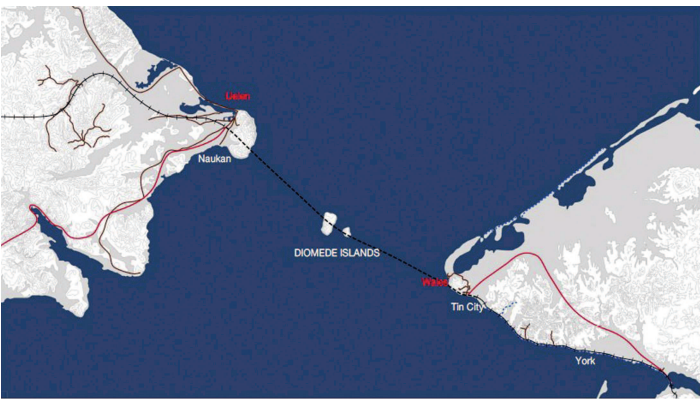
도를 거쳐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등 유라시아의 중앙과 서쪽으로 연결되며 베링해협 해저터널을 통해 북미와 남미까지 뻗어나간다.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대륙 전체로 소통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융합하여 초국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비행거리 3시간 안에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나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시켜 한반도가 동북아 및 환태평양의 물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더 나아가 베링프로젝트는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매력적인 통일 추진 전략이자, 통일 이후 연착륙 과정을 도와 통일 한반도가 세계평화를 위해 나아갈 미래 전략까지 한 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냉전의 상징이었던 분단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세계평화로까지 연결시키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에도 결정적 기여할 것

세계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접점에 있는 한반도가 이제 강대국들의 갈등과 충돌을 막아가면서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력을 끌어내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시기가 되었다. 한반도가 베링프로젝트라는 매개체로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면서 세계평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최소영**



베링해협 양안 연결도시 설계 개념도.

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태평양 요충지 한반도 세계평화 주도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 통일과도 연결돼 있다. 한반도 통일은 일반적으로 주변국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거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주변국의 이익이 한반도 통일과 직접 관련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남북통일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베링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이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역내 모든 국가가 공동의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면 국제적으로 북